월/요/광/장

이원규

‘늦봄의 미학’ 배롱나무

봄꽃에 취해 몸과 마음- ‘뫔’이 덩달아 달뜬다 보니 어느새 ‘봄날은 간다’ 오뉴월이다.

봄날 아침 퍼뜩 정신을 차리게 한 것은 배롱나무였다. 백일홍이라 부르는 이 나무는 덩달아 달뜬 나에게 진정제 같은 것이었다. 매화꽃이며 진달래꽃이 여전히 ‘미완의 혁명’으로 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일종의 각성제 같은 것이었다.

벚꽃 축제가 끝난 뒤 분분히 꽃잎이 지고 잎이 나고 ‘진달래 산천’이 되어도 백일홍 나무는 묵묵부답이었다. 봄꽃들의 잔치가 끝난 뒤에야 밤나무며 모과나무가 슬슬 연초록의 여린 입술을 내미는데도 이 나무만은 마치 죽은 듯이 동면의 겨울나무로 서있었다.

맨살의 온몸으로 혹독한 겨울을 났지만 봄이 와도 아직은 봄이 아닌 ‘춘래불사춘’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 이 봄에 가장 늦게 잎을 내밀지만 여름 한낮의 뙤약볕 아래 백일 동안 꽃을 뿜어내는 그 저력, 이것이야말로 마치 독학의 만학도처럼 함부로 휘둘리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결기가 아닐까. 전설이 참으로 슬픈 백일홍 나무 아래 서서야 시인이자 통일운동가였던 문익환 목사가 스스로 호를 ‘늦봄’이라 지은 것을 알 것도 같다.

뭔가 환하지만 ‘잔인한 사월’을 묵묵히 응시하며, 마침내 백일 동안 꽃을 피우는 저력이야말로 화르르 꽃을 피우고 지는 저 봄꽃들의 청출어람이 아니겠는가. 아무래도 백일홍은 일순간 미완의 혁명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의 완성을 꿈꾸는 꽃이다. 화려한 작심삼일이 아니라 담배를 끊어도 석 달 열흘은 끊어야 그 가능성이 보이고, 기도를 해도 백일기도는 해야 뭔가 깨닫지 않겠는가.

백일홍 나무 아래 서서 민족시인 신동엽 선생을 생각한다. 김수영 시인을 떠올린다. ‘4월은 갈아엎는 달’이라고 명명했던 신동엽 시인의 유작들과 김수영 시인의 ‘풀’을 읊조려 본다.

두 시인 모두 불운하게도 나이 마흔의 경계에서 봄꽃처럼 화르르 죽어갔지만, 그들의 정신은 백일홍의 끈질긴 결기를 닮아있다. 특히 신동엽 시인의 산문 ‘서둘고 싶지 않다’를 읽어보면 더욱 그러하다.

지금도 이 산문의 끝 부분은 지난 시절 혁명을 꿈꾸었지만 ‘아직 변절하지 않은 다수의 386 세대’에게는 일생의 좌표 같은 것이 아닌지. 신동엽 시인의 고향인 부여에서 열린 ‘신동엽 문학의 밤’ 행사에서 나는 굳이 이 산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내 일생을 시로 장식해 봤으면./ 내 일생을 사랑으로 장식해 봤으면./ 내 일생을 혁명으로 장식해 봤으면./ 세월은 흐른다. 그렇다고 서둘고 싶진 않다.’

그렇다.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겠지만 서두르기만 해서 잘 될 일은 없다. 향기도 없이 화사하게 피었다가 화르르 지고 마는 벚꽃도 아름답기야 하지만, 그것만을 꿈꾼다면 일종의 도박이 아니겠는가. 화사한 벚꽃 나무 아래서 봄을 만끽하다가도 문득 묵묵부답의 백일홍 나무 아래 서보는 것, 바로 그곳에 진정한 봄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 문단을 둘러보아도 그리 다르지 않다. 뛰어난 문재(文才)들이 안타깝게도 일찍 꽃을 피웠다가 화르르 지는 일장춘몽의 벚꽃이 되기도 하고, 백일홍처럼 늦게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지만 화무십일홍을 넘어 오래오래 명작의 꽃을 피우기도 한다. 백일홍 나무가 온몸으로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는 화두는 단순하지만 이처럼 깊고도 깊다.

일명 간지럼나무라 부르기도 하는데, 잎과 꽃이 무성한 이 나무의 밑동을 손가락으로 간질이면 가지 끝의 이파리들이 파르르 떨기 때문이다. 묵묵부답의 나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무 중에서 가장 예민한 나무인 것이다. 스스로 욕망의 짐을 벗어버리듯 나무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며 언제나 맨살의 알몸으로 서서 세상과의 교신, 그 예감이라는 안테나의 주파수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둘러보면 곳곳에 마치 죽은 듯이 죽은 듯이 제일 늦게 봄을 맞이하는 나무가 있다. 서두르지 않고 온몸의 세포들을 일깨우며 때를 기다리는 결기의 배롱나무가 서 있다. 〈시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MB 정부 초지일관 ‘호남 배제’ 너무한다

MB 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이끌 진용이 드러난 지난 5·6 개각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공직사회 활력’과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한 실무형 개각으로, 유력시됐던 인물들이 배제되는 등 출신 배경과 검증 문제 등을 놓고 고심한 흔적이 읽혀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뚜렷한 특색도 색깔도 찾아볼 수 없는 무색무취한 인사라는 평도 있다. 특히 4·27 재보선을 통해 분출된 국정 기조의 변화나 소통·화합에 대한 민심의 열망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인적쇄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혹평도 나온다.

인사의 뒤끝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상례(常例)다. 혜택을 받은 사람이나 세력이 있으면 반드시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사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까지 있다.

그런다 해도 이명박 대통령의 초지일관 ‘호남 배제 인사’는 이해할 수 없다. MB정권에서 호남인사는 철저하게 소외됐다. 그동안 극히 일부 인사가 발탁되기는 했으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양념’에 불과했다. 이는 현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엄연한 현실이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62명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단 1명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5·6 개각만 보더라도 5명의 교체 장관 중 영남 3명, 충청, 강원 각 1명이다. 호남 출신은 전멸이다. 더욱이 4·27선거에서 민심이반이 없었다면 전남 출신 법무장관 교체도 확실했다. 현 내각에서 광주·전남 출신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유일했을 뻔한 것이다.

반환점을 훌쩍 넘긴 MB 정부가 최악의 평점이라도 면하려면 당장 통합과 소통을 바라는 민심에 순응해야 한다. 특정 지역·계층을 배제하거나 편중해선 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 폭넓은 인재 발탁과 균형정책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국정 쇄신이다.

대형 건설사업, 지역업체 다수 참여시켜야

지금 광주·전남의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황이지만 마땅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4~5년 전부터 지역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위기에 직면했고, 여기에다 중견건설업체가 잇따라 도산하는 등 고사 직전에 처해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 실정에 비추어 건설업의 도태와 건설경기의 장기 불황은 지역경제 침체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업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게 세금 감면 등 ‘사후약방문’이 전부다.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규 공공 공사 및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폭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대책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광주시가 최근 새 야구장 건설과 광주하계U대회 선수촌 공사에 지역업체를 최대한 참여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대규모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1000억 원대에 이르는 야구장 건설에 지역업체가 컨소시엄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참여하면 하도급 업체까지 연결돼 경기 활성화에 단초가 될 수 있다. 물론 대형 건설공사 입찰의 경우 규정상 지역업체 참여율이 4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론 권고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사업비가 무려 7000억 원에 달하는 하계U대회 선수촌 조성사업 역시 다수의 지역업체 참여는 당연하다. 그러나 사업자인 현대건설 측이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지역의 하도급 업체들만 참여시키겠다고 입장을 피력한 것은 사업을 독식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되면 지역업체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물론 자금의 역외 유출만 초래해 지역경제에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광주시는 두 가지 대형 건설공사가 지역경제의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역업체의 참여를 반드시 관철시키라는 얘기다.

법조칼럼

전자소송시대의 개막

김성흠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기술문명은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하지만, 같은 시대에 도입된 우리나라 근대적 사법제도는 기술문명의 발전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민사재판을 받으려면, 당사자들은 종이에 글씨를 써서 그 서류를 일일이 우체국을 통하거나 법원을 직접 방문해서 접수했다. 이때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또, 다른 기관 등에 대해 그 기록을 자기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송부해 달라는 신청을 한 뒤 법원으로부터 기록 도착 통지서를 받고 법원에 가보면 자신의 기록을 판사가 보고 있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많았다.

이 같은 일은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당사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수된 서류를 시간순서대로 편철하고, 당사자로부터 부본을 받아 우체국을 통하거나 집행관들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했다.

이는 재판절차가 지연되는 주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과사무실에서 판사실로, 또 판사실에서 법정으로 옮겨 보존하면서 많은 예산과 인원이 소요됐다.

이 같이 근대 사법제도는 ‘종이’로 만들어진 유형물인 기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제도였다.

그러나 종이 기록은 옛 추억이 될 것 같다. 지난 2일부터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민사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은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자신의 집에서 간단하게 각종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지 100여 년 만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변화다.

전자소송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이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문서작성용 소프트웨어, 스캐너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된다.

마치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대법원 전자소송 인터넷홈페이지(ecfs.scourt.go.kr)에 접속해 사용자등록(공인인증서를 이용한 회원가입절차)을 하고, 제시되어 있는 설명에 따라 빈칸을 채운 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납부하면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된다. 상대방이 내는 서류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서 오는 사실조회내용도 도착 여부와 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거로운 열람·등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소송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생긴 분쟁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해야 할 일이지, 권할 만한 일은 절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전자소송제도를 만들고, 이를 홍보하는 것이 국민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전자소송제도는 이 같은 점에서 법원의 문턱을 낮춰,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이 더 편하고, 저렴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널리 보급되었으면 한다.

판사와 당사자 모두 태블릿 PC를 보면서 현장검증을 하고, 열심히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모습을 꿈꿔 본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기고

음악·미술 교육이 필요 없다고요?

유순남

“역대 대통령 중에서 노무현 이가 젤 나쁜 놈이여.” 쉬는 시간이 되어 강의하시던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예전에 초등학교 교장을 하셨던 모 선생님이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했다.

“왜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는 윤 선생이 상기된 얼굴로 물었다.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두들 그 선생님의 입을 쳐다보며 무슨 말이 나올까 궁금했다. 대답은 실망스럽게도 모 고위 공무원을 자리에서 끌어내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이없는 답변에 윤 선생은 “저는 대통령이 선(善)한가 불선(不善)한가의 잣대는 그가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정치를 했냐,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했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하며 노 대통령이 사심이 없었음을 피력했다.

그러자 그 교장 선생님은 한껏 고조된 목소리로 “노무현이 뭣을 잘 했는디?”라며 반문했다. 갑자기 분위기가 긴장되려는 순간 성격 좋은 박 선생이 “자, 우리는 ‘논어’를 공부하러 왔으니 ‘논어’에 관한 얘기만 합시다.”라며 어색한 분위기를 바꿨다.

그분은 몇 개월 전에도 “전교생을 화가나 음악가 만들 것도 아닌데 학교 교육과정에 음악, 미술은 왜 넣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음악 미술 같은 과목을 교육하는 것은 물론 전문예술인 발굴에도 목적이 있긴 하지만, 더 큰 목적은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나의 반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학교의 역할 중에서 사회성을 기르고, 정서함양과 체력 증진,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 확립 등의 역할은 무시한 채 단순히 지식 전달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공자는 논어 ‘태백’편에 “흥어시하고, 입어예하며, 성어악이니라(興於詩 立於禮 成於樂)”고 했다. 근엄하고 딱딱했을 것만 같은 옛 성현들도 의외로 ‘음악이 선(善)의 완성’이라고 할 만큼 예술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시어로 된 노래를 들으면서 범죄를 구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지금껏 살면서 그분처럼 독특한 색깔을 내는 분을 만나는 일은 드물었다. 새삼 인간의 사고방식이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중요한 것은 그 천차만별이 프리즘의 빨주노초파남보와 같은 저마다 그 독특한 맛과 멋과 쓰임이 있는 색깔과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파란 하늘이 보는 이에 따라서 빨간색이나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은 렌즈의 차이다. 벽초 선생님은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는 투명한 안경을 쓰고 태어나는데,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색안경으로 변했다”고 한다.

위정자(爲政者)들이 잘못된 사고를 가졌을 때,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사회는 학벌을 중요시하고 점수로 우열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인성이나 도덕성 그리고 철학이나 가치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그대로 덮어두어서도 안 될 일인 것 같다.

〈해남공업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無等鼓

명품 막걸리

‘막 거른 술’을 뜻하는 막걸리는 그 역사만큼이나 명칭도 다양했다. 농부들이 즐겨 마신다 하여 ‘농주’(農酒), 빛깔이 맑지 못하고 뜨물처럼 탁하다고 해서 ‘탁주’(濁酒) 또는 ‘탁배기’, ‘회주’(灰酒)라고 했다. 나라를 대표하는 술이라 하여 ‘국주’(國酒), 배꽃이 필 무렵 누룩을 만든다 해서 ‘이화주’(梨花酒)라는 낭만적 이름도 있다.

또한 ‘가주’(家酒)라고도 불렸을 만큼 조선시대만 해도 막걸리를 직접 담궈먹는 집이 많았다 한다. 요즘 말로 하면 ‘국민주’였던 셈이다. 1960년대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술 제조에 쌀 사용을 금지하는 양곡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주류 소비량의 60%가 막걸리였다.

소주와 맥주에 한동안 뒤쳐졌던 막걸리의 변신이 눈부시다. 단점으로 지적됐던 숙취와 트림 등을 완화한데다 깔끔해진 디자인, 고른 영양소 덕분에 현대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웰빙주’로 탈바꿈했다. 주먹구구식이던 제조공정을 규격화·위생화하고 발효기술을 표준화한 것이 큰 몫을 했다. 지역 특산물이나 과일을 활용한 퓨전 막걸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종류도 다양해졌다. 캔이나 팩에 담은 살균 막걸리는 유통기간을 크게 연장시켰다.

덕분에 같은 쌀 문화권인 일본과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에는 38개국에 1910만 달러어치가 수출됐고 올해 목표는 3000만 달러에 이른다.

최근에는 한국식품연구원 연구팀이 막걸리에 항암물질인 ‘파네졸’ 성분이 맥주나 와인에 비해 최고 25배 더 들어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아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다.

전남지역 막걸리 생산업체 대표 50여 명이 전국 최초로 연합회를 결성해 공동사업에 나섰다. 곡창 전남의 친환경 고품질 쌀로 차별화된 막걸리를 개발해 산업화하자는 취지다. 고급 와인이나 사케를 능가하는 명품 막걸리의 탄생을 기대해본다.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잔인한 공포괴담집 문구점서 버젓이 팔아서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책상에 앉아 책을 열심히 보기에 독서를 하는 줄 알고 무심코 지나쳤다. 그런데 얼마 뒤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가 읽고 있던 것은 교과서나 교양 서적이 아니었다. 조그만 담뱃갑 크기의 책으로 학교 앞 문구점에서 500원에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책의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소위 잔혹한 내용의 공포 괴담집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끔찍한 표현들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아이 말로는 또래 친구들도 유행처럼 1~2권씩을 가지고 다니며 서로 책을 빌려본다고 했다. 당장 아이에게서 책을 빼앗아 버리고 다시는 읽지 못하도록 타일렀다. 하지만 아이가 맘만 먹으면 저렴한 가격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어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같은 책들은 서적이 아닌 문구류로 판매되다 보니 관계 당국의 사전 심의나 정식출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팔리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들의 주머니돈을 노리는 얄팍한 상술에 동심이 멍들고, 청소년들이 잔인해져 가지 않도록 학교나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

▲김진순·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